

12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네 마녀의날`로 혼조 [다우: 8,579.11pt (-0.3%)]	자동차 구제계획 발표로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이한 부담감과 주말을 앞둔 관망세로 오후들어 지수가 되밀려 혼조세로 마감함.
자동차 지원계획 발표..GM 22% 폭등	부시 행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결정했음.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에서 1차로 134억달러를 지원하고 내년 2월께 4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음. TARP는 당초 재무부가 금융권을 지원할 목적으로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임. 7,000억달러중 1차로 3,500억달러가 집행중에 있는데, 자동차업계에 지원되는 134억달러는 여기에 포함됨.
무디스 12개 은행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무더기 하향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가 미국의 12개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을 무더기로 하향조정했음.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은행산업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는 설명임.
오라클 예상치 부합한 실적으로 강세	기술주 중에선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오라클이 이익전망이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한 점이 호재가 돼 6.92% 상승했음. 비료성분인 산화칼륨 생산업체인 인트레피드포타쉬는 분기실적이 저조하다는 소식으로 7% 이상 급락했음.
국제유가하락 [WTI: \$33.87 (-\$2.35)]	급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음. 서부 텍사스산 유가(WTI) 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35달러(6.49%) 하락한 33.87달러를 기록했음. WTI 1월분은 이날 만기일을 맞이했음. 이를 감안하면 만기일을 맞이해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최근 며칠간 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영(英)·독(獨)·불(佛)·일(日)도 "차(車) 구제금융"	미 연방정부가 미국 자동차 3사 '빅3'에 대해 174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조치를 발표하자,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
中 "무단철수 외국기업 끝까지 추적"	중국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정상 철수 외자(外資)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 발표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지침'에서 이같이 밝힘.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제목	주요 내용
中 위안화 블록화... 日도 '위안화 대책' 부심	일본이 중국 위안화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해 내심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찾고 있음. 아직은 엔고에 따른 환율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어 위안화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 유지에 부심. 하지만 국제수지 조절을 위한 엔화가치 인하 문제가 해결되면 위안화 부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임.
中, 대륙진출 대만기업에 1,300억 위안 지원	중국이 대륙에 진출한 대만기업에 대출을 통해 1,300억 위안(약 24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양안(兩岸) 경제협력 조치에 나섬. 중국은 21일 상하이(上海)에서 폐막한 '4회 양안경제문화논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개 항의 경제협력 조치를 발표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
반도체BB율 2년만에 1.0돌파	북미 반도체 장비 주문-출하 비율(BB율)이 최근 2년만에 처음으로 1.0을 상향 돌파.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미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BB율이 지난달에 1.0을 기록했으며 BB율이 1.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이후 무려 24개월만에 처음. 이같은 반도체 장비 BB율 상승이 D램 현물가격 상승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국민은행, 하이브리드·후순위債 8천억 발행	국민은행이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8,000억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할 계획. KB금융지주 소속 국민은행은 22일 하이브리드채 3,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하이브리드채권은 지난 2003년 발행했던 하이브리드채권 중 1,051억원어치를 상환하기 위한 차환발행분이 포함돼 있음.
롯데, 두산주류 인수 우선협상자 유력	롯데그룹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두산주류 인수 우선협상자로 유력한 상태로 양사는 우선협상자 발표시기와 실사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율중. 롯데가 이번 두산주류 M&A에 제시한 인수 금액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약 4,300억~4,700억원대 수준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